

‘상승세’ 탄 광주, 전북이라고 못 잡을쏘냐

엄원상·엄지성 스피드에 펠리페 복귀로 공격 무게...수비 조직력도 탄탄 대구서 4-1 기분좋은 역전승...3R 베스트팀·선수 4명 베스트 11 올라 내일 전복전...홈에서 전복에 강한 징크스·팬 응원 더해 2연승 기대감



세 경기만에 화력을 폭발시킨 광주가 분위기를 이어 '대어' 전복 사냥에 나선다. 광주FC가 13일 오후 2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전북현대대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 1 2021 4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개막 3경기 만에 '꿀찌후보'라는 의견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수원삼성과의 개막전에서 2개의 슈팅에 그쳤던 광주는 지난 6일 울산현대와의 홈경기에서 8개의 슈팅을 날리며 예열을 끝냈다. 0-1 패배는 기록했지만 '특점 빼고 다 이긴' 광주의 선전이었다. 4일 만에 치러진 10일 대구FC와의 3라운드 경기에서는 4-1 승리까지 만들었다. '적지'에서 만든 역전승이라서 더 의미가 있다. 0-1로 뒤진 전반 26분 김주공의 동점골을 시작으로 전반 추가시간 김중우가 시원한 중거리 슈팅으로 2-1로 승부를 뒤집었다. 광주는 후반 초반 대구의 거친 공세에 시달렸지만, 골키퍼 윤보상을 슈퍼세이브로 분위기를 바꿨다. 그리고 마침내 부상에서 회복한 '괴물 스트라이커' 펠리페가 투입되면서 광주 공격에 무게가 실렸다. 펠리페에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후반 36분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수 이한도는 정확한 헤더로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경기 막판에는 엄원상과 엄지성 '엄두마차'가 무서운 질주로 KO펀치를 날렸다. 빠른 스피드로 좌우 측면을 뚫은 두 사람은 강력한 슈팅까지 선보이며 대구 수비를 붕괴시켰다. 후

반 추가 시간 엄지성이 강슛으로 골대를 때렸고, 뒤로 흐른 공을 잡은 엄원상이 골로 연결했다. 광주는 대구전 기세를 몰아 '디펜딩 챔피언' 전복과 맞선다. 전복은 '우승후보'답게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 상대전적에서도 10승 5무 1패로 전복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펠리페의 복귀로 광주는 공격 완전체를 구성했다. 펠리페의 결정력에 엄원상·엄지성의 놀라운 스피드가 더해지면서 광주의 창이 더 날카로워졌다. 골키퍼 윤보상을 중심으로 한 수비와 김중우를 기점으로 한 조직력도 탄탄하다. 정확한 킥으로 전방에 볼 배급을 하는 김중우는 대구전에서는 직접 골까지 기록하면서 1골 1도움의 활약을 했다. 중원이 움직이면서 공격도 깨어났고, 밸런스가 좋아졌다. 또 광주는 안방에서 전복에 강했다. 2017년 여봉훈의 환상적인 중거리 골로 홈팬들 앞에서 전복을 상대로 첫 승을 장식했었다. 지난해에는 3-3 무승부를 이루면서 갈 길 바뀐 전복의 애를 태웠다. 광주가 홈팬들의 응원까지 더해 전복을 상대로 전용구장 첫 승과 함께 2연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광주는 대구전 4-1 대승과 함께 3라운드 베스트팀이 됐다. 이 경기는 베스트 매치에도 선정됐다. 골을 기록한 엄원상·김중우·이한도와 함께 동점골을 도운 이민기까지 4명이 베스트 11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 엄원상이 지난 10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와의 K리그1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골을 넣은 뒤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최형우에 흠린 맞은 멧덴 “똑똑한 타자”

KIA, 시뮬레이션 게임 멧덴, 직구·투심 등 6개 구종 점점 멧 감독, 포수들 활약에 행복한 고민

때를 기다리고 있는 KIA 타이거즈 공수의 핵심 최형우와 멧덴이 '맞대결'에 나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9-10일 대전에서 한화와 연습경기를 소화했던 KIA 선수들은 1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하며 잠시 숨을 골랐다. 이날 시뮬레이션 게임이 준비되면서 새로운 외국인 투수 멧덴이 2년 차 장재혁, '고졸 루키' 박대명과 함께 마운드에 올랐다. 최형우는 류지혁, 최정용, 황은호와 돌아가면서 타석에 섰다. 멧덴과 최형우는 아직 실전 경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멧덴은 지난해 팔꿈치 뺏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고,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실전을 소화하지 못했다. 그만큼 윌리엄스 감독은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멧덴의 새 시즌을 구상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날 시뮬레이션 훈련에 대해 "하루 밀어 실전에 바로 내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

면 다음 타에서 짧게 쉬어야 한다. 아직은 초반이라서 밀어 붙이고 싶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최형우는 아직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몸 상태는 이상 없다. 스윙 감각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역시 천천히 실전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3이닝을 소화한 멧덴은 "전반적으로 잘 투구 했던 것 같다. 연습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원하는 곳에 던지는 것에 집중했다"고 자평했다. 이날 멧덴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6개 구종(직구, 투심, 슬라이더, 커터, 커브, 체인지업)을 모두 시험해봤다. "잘 던진 것 같다"는 멧덴이지만, 흠린을 맞기는 했다. 상대가 바로 최형우다. 멧덴은 "최형우는 스마트한 타자다. 내가 연습 때 초구를 직구로 던지고, 직구를 많이 던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흠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최형우는 박대명을 상대로도 시원하게 우측 담장을 넘기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다. 예년보다 늦은 페이스로 시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연습경기를 통해 본 선수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좋다. 특히 포수들의 '감' 덕분에 윌리엄스 감독은 '기본 좋은 투봉'을 앞두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멧덴

윌리엄스 감독은 "타자들 감이 나쁘지 않다. 특히 포수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다"며 "포수들은 라이브 배팅할 때 쉬지 않고 매일매일 훈련을 했기 때문에 좋다. 타이밍이 좋다"고 말했다. 포수들의 뜨거운 경쟁을 벌이면서 최종 엔트리 선택을 놓고 고민은 늘었지만 윌리엄스 감독은 "좋은 투봉이다. 이런 투봉은 좋다고 생각한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보자” 부산이 들썩~

SSG 선수단, 연습경기 장소 사직구장 등장...팬들 문전성시

'슈퍼스타' 추신수(39·SSG 랜더스)가 자신의 고향인 '구도(球都)' 부산을 뜨겁게 만들었다. 추신수는 11일 경남 창원에서 자가격리를 마친 뒤 SSG 선수단의 연습경기 장소인 부산 사직구장으로 이동했다. 이날 SSG와 롯데의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됐지만, 추신수의 합류 소식을 전해 들은 수십 명의 팬이 경기장 인근에 몰렸다. 사인을 받으려는 팬들은 추신수의 도착 장소로 예상되는 선수단 주차장과 경기장 출입구 등에 삼삼오오 모였다. 취재진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날 사직구장은 40개 언론매체 7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오후 3시경 검은색 밴을 타고 사직구장 선수단 출입구 앞에 내린 추신수는 취재진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반갑게 인사했다. 몇몇 팬들은 추신수를 향해 "파이팅"이라며 응원했다. 추신수는 감회에 젖은 듯 밝게 웃었다. 마스크



에 얼굴 절반이 가려있었지만, 초승달 모양이 된 두 눈만으로도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날 교체돼 다른 선수들보다 경기를 일찍 마친 SSG 내야수 최주환은 입구 앞으로 나와 추신수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 1년만에 사퇴

건강상 이유로 이임 뜻...직무대행 체제 전환·보궐선거 준비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1년여 만에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시체육회는 11일 "김창준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이임의 뜻을 전했다"며 "이임서 제출 등 관련 절차는 내주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민선 첫 체육회장으로 취임해 지방체육회의 민선 시대를 열었다. 김 회장은 체육인으로서 그동안 쌓았던 경험을 통해 광주체육 활성화를 알리고,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위원,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장, 대한체육회 부회장,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정부와 대한체육회 등 중앙과 소통했다. 또 민선체육회 출범, 법정 법인화 추진, 비대면 사업 추진, 컨디션센터 개소 등의 성과를 냈으며 회원중목단체 회장 선거, 이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대한체육회장 선거,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발족 등의 현안 업무도 마무리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예정됐던

2023년 2월까지의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체육인들로부터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고 민선 첫 체육회장직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년간 변화와 혁신으로 광주체육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방 체육, 나아가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았다"며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체육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시체육회는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사전 지명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며, 법인설립과 함께 보궐선거 등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보궐선거는 지난해 선거와 같이 선거인을 통한 대의원확대기구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우성 “마음 비우고 야구 채웠다”

지난 KIA-한화 시범경기서 3루타 외야 자리 경쟁 '시동' 지난해 부진 후 절치부심 체중 7kg 줄이고 강한 타구 집중

KIA 타이거즈 이우성이 마음을 비워서 기대를 채운다. 터거가 빠진 외야는 신예 선수들의 경쟁으로 하려 더 뜨거워졌다. 이우성도 외야에서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는 이 중 하나. 공격으로 여필해야 하는 이우성은 지난 10일 한화와의 연습경기에서 우중간 3루타로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이우성은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다. '팀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많이 생각했다. 한 번씩 대타로

나갈 때나 (나)지원이 행이나 기존 선수들 체력이 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게 이우성의 냉정한 평가다. 이우성은 "작년에 한 번씩 나가거나 대타로 나갈 때 준비를 잘못했다. 몸을 가볍게 유지하고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우성은 7kg을 감량하기도 했다. 마음은 비웠지만 야구 생각은 더 많이 하고 있다. 이우성은 "공격에서는 강한 타구를 만들려고 한다. 라인 드라이브를 많이 치려고 한다. 기술적인 변화는 없는데 라인 드라이브를 치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며 "팀에 도움이 되려면 방향이 중요하지만, 수비도 필요하다. 감독님께서도 수비를 많이 생각하신다. 그래도 경기에 나가서 잡아도 보고 논

치기도 하면서 수비가 느는 것 같다. 이현근 코치님도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 주신다"고 말했다. '우승 멤버' 이명기와 트레이드를 통해 타이거즈 일원이 된 이우성은 기대에 부응한 성적에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 이명기에 대한 팬들의 애정을 알기에 미안함도 컸다. 이우성은 "팀과 팬분들께 죄송하다. 이명기 선배가 대단한 선배라고 생각한다. 더 잘해야겠다.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위축이 되는 것 같다. 결과가 안 좋아서 죄송한 마음이 컸다. 하지만 팀에 적응도 됐고, 선배들도 잘 챙겨주신다. 이제는 죄송한 마음보다는 편하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작년에 결과가 안 좋고 홈런도 안 나와서 나에게 대한 실망이 컸다. 올해는 결과가 중요한데 주전 욕심보다는 내가 할 것을 하려고 한다. 루틴을 지키면서 내 것을 준비하고, 하려고 한다"며 "내가 생각한 강한 타구 만드려고 하면 운 좋게 홈런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욕심보다는 지킬 것 지키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